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왕이 없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함**

성경: 사 2:10-18, 3:7-15, 8:33-35, 10:6-7, 13:1, 17:5-6, 18:1, 30-31, 19:1, 21:25

I. 타락한 이스라엘은 통치와 경배와 도덕성에서 혼돈스럽게 되었다 — 사 3:7-15, 8:33-35, 13:1, 17:5-6, 18:30-31.

- A.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소유한 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 사 1:27-36.
- B.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다 — 사 2:10-18.
- C.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의 조상을 이끌어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랐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 사 10:6-7.
- D. 하나님은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원수들과 맞설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 사 2:11-15.
- E. 사사들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시대는 또한 비극의 시기였다.
- F.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숭배(사 17-18장), 내분(9장), 지파들 사이의 적대감과 싸움(20-21장), 음행(19장), 불결함, 잔인한 살인, 온갖 형태의 악한 일이 있었다.

II.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 — 사 21:25.

- A.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의 지위를 폐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 17:6, 18:1, 19:1.
- B. 비록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통치나 행정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위를 폐해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표현이 없었다 — 사 18:31, 출 28:30 각주 1.

사사기

메시지 9 (계속)

- C. 사사들의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고, 그 결과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 사 17:6, 18:1, 19:1, 21:25.
1.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에 들어가면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 12:8-14.
 2.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일을 하게 하여 불법적이고 사악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제한을 벗어던지게 하였다. 이것은 사사기 17장과 18장, 19장 1절, 21장 25절에 나타나 있다.
 3.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어떤 일이 그들이 보기에 옳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다.
 4. 우리가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해야 한다 — 신 12:8.
- D.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을 때 권위가 없었으며, 백성들은 다만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였다. 악한 이 시대의 일들, 곧 세상의 일들뿐 아니라 종교적인 체계로서의 기독교의 일들도 정확히 이와 동일한 상태에 있다 — 엡 2:2, 12.
- E.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사사기에 묘사된 불법에서 구출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 딤후 2:14, 갈 1:4, 마 6:10.

III.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곧 영원토록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 딤후 1:17.

- A. 우리가 믿고 섬기며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계시는 하나님은 만대의 왕, 곧 영원하신 왕이시다 — 딤후 1:17, 고후 13:14.
- B. 그리스도는 왕으로, 곧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실 통치자로 태어나셨으며, 지금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다 — 마 2:2, 6, 계 19:16, 17:14.
1. 왕이신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다 — 시 24:8, 10.
 2.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것을 깨달아야 하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 아래 살고 있다 — 엡 3:17, 딤후 3:15, 6:15.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9 (계속)

3.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서, 곧 만군의 여호와,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오실 것이다. 이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 시 24:7-10.
4. 그리스도는 다윗의 보좌에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실 것인데, 먼저는 천년왕국에서, 그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 사 9:7, 눅 1:33 각주 1.
5. “그때 다윗의 천막 안에 / 한 보좌가 자애 가운데 굳게 세워지리니 / 한 분께서 진리로 그 위에 앉으시어” — 사 16:5.
 - a.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천막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은 위로와 격려와 복원을 의미한다.
 - b. 그리스도의 보좌는 자애 곧 부드러운 애정 가운데 굳게 세워질 것이며, 그분은 진리로 곧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그분의 보좌 위에 앉으실 것이다 — 사 16:5.
 - c.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심으로 자애와 진실함과 신실함과 정의와 의가 있는 왕국을 이끌어 오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덕들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될 것이다 — 사 16:5.

IV.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에 순종함으로써, 불법에서 구출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에서 구출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해야 한다 — 딤후 2:14, 마 7:21-23.

A. 우리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불법이다 — 삿 21:25.

1. ‘죄는 불법이다.’ 그러므로 불법은 죄이며, 바뀌 말하면 죄는 불법이다 — 요일 3:4.
 - a.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불법’ 즉 법이 없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곧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 b. 죄를 짓는 것은 법이 없는 것, 곧 법을 어기는 것이다.
 - c.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자신의 본성과 자신이 숙고한 것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 거역할 때,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 d. 불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 e. 불법을 일삼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현시대는 불법과 거역으로 가득하다.
 - f.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권위에 맞서 거역할 뿐 아니라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사기

메시지 9 (계속)

2. 그리스도는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어 그분의 유일한 소유인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 딤후 2:14.
- B.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 마 7:21.
1.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 — 롬 10:13, 12:2, 마 12:50, 엡 5:17, 골 1:9.
 2.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 요 3:3, 5.
 - a.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요 1:12-13, 3:5-6.
 - b.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생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 마 7:21, 12:50.
- C. 주 예수님은 예언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분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한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했기 때문이다 — 마 7:23.
1. 우주 안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원칙과 사탄의 반역이라는 원칙이다 — 행 1:7, 사 14:13-14.
 - a. 우리는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반역의 길을 갈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불법의 원칙에서 돌아서며 반역의 길을 거절해야 한다 — 마 28:18, 유 11.
 - b.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우리가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봉사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
 2. 주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의 권위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원칙 안에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 — 행 1:7, 마 7:21, 12:50.
- V. 사사기에 기록된 통치와 경배와 도덕성에서의 혼돈은 옛 창조물 가운데 있는 사탄적인 혼돈을 묘사한다 — 창 3:1-5, 계 20:10-21:4.
- A. 우주는 혼돈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혼돈이 오늘날 세상에 있는 고난의 근원이며, 창조물 가운데 혼돈이 있는 한 이 세상에는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 — 롬 8:18-22.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9 (계속)

- B.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사탄의 혼돈의 역사이다 — 창 1:1-2, 26, 계 20:10-21:4.
1. 마귀 사탄은 악한 혼돈의 근원이자 요소이다 — 마 16:23, 계 2:9-10, 고후 2:11, 벧전 5:8.
 2. 하나님 자신은 신성한 경륜이시며,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하는 행정과 안배와 계획으로서 우리 안에 오셨다 — 엡 1:10, 3:10.
 3. 성경과 우리의 체험에서 사탄적인 혼돈은 항상 신성한 경륜과 나란히 가며, 사실상 하나님의 경륜을 돕는다 — 엡 3:9.
- C. 혼돈과 반역과 불법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시 2:1-6, 잠 29:18상, 엡 3:9.
1. 우리는 이 이상에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아야 한다 — 행 26:19.
 2.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한 이상 안에서 강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 엡 1:10, 3:9, 계 4:11, 고전 15:58, 히 12:28.
- D. 이기는 이들은 옛 창조물 가운데 있는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새 창조물을 위한 신성한 경륜을 수행한다 — 딤후 1:4, 엡 1:10, 3:9-10, 고후 5:17, 갈 6:15.
1. 이기는 이들은 사탄적인 혼돈에서 구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이기는 이들은 파괴적인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건설적인 신성한 경륜 안에서 승리한다 — 딤후 1:3-4, 19-20, 4:1-2, 딤후 3:10, 딤후 1:15, 4:8.
 2. 이기는 이들은 혼돈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서’(딤후 2:1), 신성한 경륜을 위해 서 있을 수 있고 이 신성한 경륜을 살아 낼 수 있다 — 딤후 1:10-15, 3:14-17, 4:2, 5, 7, 18.